

유적지 순례 97

청몽당(淸夢堂) 제(霽)와 이판공(吏判公) 주(璽)의 자손들



△적곳재사 전경: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능내



△청몽당(淸夢堂) 제(霽) 묘소: 시흥시 하중동 능내



△청몽당 금청각: 전북 남원시 노암동



△청몽당 필적



△집의공 유원묘소



△유원이 주에게 준 노비문서와 경(硯) 호구단자



△화릉군(花陵君) 상우(尙友) 묘소: 시흥시 하중동 능내

24세(世) 청몽당(淸夢堂) 제(霽)

공은 명종 8년에 출생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좌위(忠佐衛) 부사과(副司果)를 지냈다. 호는 이이(而已)이며 문장명세(文章鳴世)로 당세의 명류(名流)와 교류하였다. 수은(睡隱) 강항(姜尙)이 청몽당기(淸夢堂記)를 지었다. 묘소는 시흥시 직곡의 능내 선산 조고 현(鉞)묘 계하에 있다. 후사는 유원(有源), 만원(萬源) 그리고 1녀를 두었다.

집의공 유원(有源)은 선조 29년에 출생하여 현종 14년 졸하니 집의(執義)로 증직되었다. 묘소는 선고묘 계하에 있다. 공은 주(柱), 우(楸)와 3녀를 두었다. 주(柱)는 광해군 9년 출생하여 숙종 3년 졸하니 승지(承旨)로 증직되었다. 묘소는 인천 검의곡에 있다. 집의공이 1634년 장자 주(柱)에게 준 노비문서는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다. 주(柱)는 이조참찬으로 증직된 화릉군 상우(尙友)와 사마시하여 참봉이 된 상도(尙度) 그리고 상경(尙系岡)을 두었다.

화릉군(花陵君) 상우(尙友)

공은 인조 16년 출생하였다. 공은 학행이 탁월하여 사림의 추증을 받고 문장은 당대의 8걸(傑)중 한사람으로 꼽혔다. 숙종 8년 졸하니 시흥 직각 재실열 관곡지에 있다.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화릉군(花陵君)에 봉해졌다.

아들은 진천현감 경(景), 정랑 흙(熈), 부윤 황(火兎)을 두었다. 경(景)의 증손 중립(中立)은 진주목사 제응(濟應)의 차자로 영조 29년 출생하였다. 공은 학행으로 천제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 진산군수를 지냈는데 순조 14년 임소에서 62세로 졸하였다. 훗날 문헌공 돈인(敦仁)이 귀히 되어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되었다.

황(景)의 손 성응(聖應)은 영조 5년 출생하여 관직은 동령부 도정(都正)이고 순조 3년 졸하였다. 묘소는 시흥시 도창동 승지공 묘하에 있다.

아들 중교(中敎)는 영조 25년 출생하여 순조 15년 졸하였다. 중교(中敎)의 손 용정(用正)은 순조 1년 출생하여 호가 소유(小游)이며 학행으로 출사한 후 산청군수를 거쳐 청풍부사를 지냈는데 다스린 고을에서는 선정을 기리는 거사비(去思碑)가 있으며 문장이 탁월하여 세상을 명동(鳴動)시켰다. 철종 12년 61세로 졸하니 유교로 소유집(小游集) 7권을 남겼다. 묘소는 시흥시 도창동에 있다.

상도(尙度)

공은 효종 10년 출생하여 현종 10년 사마시하여 참봉이 되었다. 묘소는 시흥시 직곡의 능내 선산 아래에 있다.

24세(世) 찰방공(察訪公) 주(璽)

선조 7년 출생하여 광해군 4년 식년시 진사 급제하였다. 일찍이 사림(士林)의 의논을 장악하여 우계(牛溪) 성혼(成渾)이 전인홍에게 무고를 당하자 광변하는 상소를 올려 변명하니 사림의 의논이 가장(嘉賞)하였다. 광해의 난정으로 남원으로 낙향하였다. 인조반정이후에 오수 찰방(察訪)에 추천되었으며 인조 4년 전주 객관에서 졸하니 수 53세였다. 인조 23년 사헌부 집의로 추증되고 현종 2년 이조판서(吏曹判書)로 가증되었다. 묘소는 제천시 청풍 수하면 명오리 후록수월암에 있다.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이 비문을 짓고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이 글을 썼으며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전자체를 썼다. 시남 유계(兪葵)가 묘지를 짓고 증손 우의정 상하(尙夏)가 추지를 지었다. 후사는 성원(聖源), 도원(道源)과 2녀가 있다.

25세 부사공(府使公) 성원(聖源)

선조 35년 출생하여 인조 8년 진사로 태학에 들어가 울곡(栗谷) 이이(李珣), 우계(牛溪) 성혼(成渾)선생을 추종하여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문묘에 합사)할 것을 주장하여 사림의 추복(推服)을 받았다. 또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지정척사(特正斥邪)의 마음가짐으로 사림의 추종을 받으며 명현들과 교유하니 유계(兪葵), 송시열(宋時烈) 등과 교류하였다. 효종 10년 영천군수로 재직하여 태사공 묘역의 치묘입석(治墓立石)을 추진하고 태사공(太師公)의 행장을 찬하였다. 선산부사를 지냈으며 인조 19년 신사 4월 태시(泰時), 담, 증(愼), 하당(荷塘), 두인(斗寅) 등과 더불어 신사보(辛巳譜)를 편찬하였다.

여산의 관아에서 공이 송사를 검토하는 증손 상하(尙夏)가 9세의 나이에 “이것은 위조일 것인데 왜 확인해보지 않으십니까?” 하여 공이 관련자를 힐문하니 사림인이 들어 조치하였다.

임인년 졸하니 수 61세였다. 숙종 31년 이조참의로 증직되고 경종 1년 좌찬성으로 가증되었다. 묘소는 제천시 청풍 수하면 명오리 후록수월암 선고묘 좌측에 있다. 후사는 격(格), 영(稜), 평(秤)을 두었다.

26세 육유당(六有堂) 격(格)

광해 12년 출생하여 어린 나이에 의젓하고 엄격하기가 성인 같으며 7,8세에 문자를 해독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을 하니 선비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효종 원년 사마시 진사가 되고 효종 2년 정시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에 들어가 지제교의 삼자함을 띠고 집의가 되었다.

영남에서 큰 흉년이 들어 풀뿌리로 연명하니 공은 강화도에 비축한 곡식을 옮겨 보충하고 조세를 완화시키기를 상계 청하니 이를 가납하였다. 현종 1년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 연경에 다녀올 때에 관서(關西)를 지나는데 감사(監司)가 은자(銀子)와 인삼을 후히 주니 공이 사양하기를 세차례에 이르니 감사가 공의 청렴 결백함을 극구 칭찬하였다.

현종 2년 강릉도호부사로 배수되어 나갔는데 흉년이 들어 피해가 흑심하였다. 공은 절약하고 긴축하여 백성들의 요역(徭役)을 생감시켜 주었다.

현종 9년 황해도 도사, 강릉부사가 되었으며 성품이 곧아 세인의 추증을 받았으나 적당의 혐의도 받았다. 송시열의 문하로 송시열의 뜻에 따라 화양동에 만동묘와 대보단을

세우고 명나라 황제를 제향하였다. 현종 12년 졸하니 숙종 31년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증직되고 경종 1년 영의정(領議政)으로 가증 되었다. 묘소는 청풍 찰방공 묘우별곡에 있다. 묘갈과 묘지를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찬하였으며 행장은 아들 상하(尙夏)가 썼다.

27세 문순공(文純公) 수암 상하(遂庵 尙夏)

권상하선생은 선고(先考)는 육유당(六有堂) 증 영의정(휘 격)이다. 수암선생의 기사는 다음호에 상세히 게재한다.

28세 초당공(草堂公) 옥(煜)

공은 효종 9년 출생하여 호가 초당(草堂)이고 숙종 7년 진사가 되고 무인에 학력으로 세자익위사세마로 제수되었다. 숙종 29년 진천현감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숙종 30년 보은 현감으로 숙종 40년 돈령부 판관을 거쳐 단양군수로 나갔다. 동 42년 선산도호부사에 보임되었는데 사직하고 이듬해 60세로 졸하니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예(才藝)가 탁월하였으니 동춘당 송준길(宋浚吉)이 “서울장안 가운데 제일로다 洛下謫居第一”하였으며 화양동 송시열 문하에서 수학하고 있을 때 우암이 “장차 원도(遠到)되 대기(大器)로다”하였는데 문순공 앞에 졸하니 문순공이 애도해 마지않았다. 묘소는 충주시 동량면 문순공 묘소 계하에 있다. 문순공이 손수 행록을 짓고, 비문은 영의정 이의현이 짓고 글씨는 현손 영의정 돈인이 썼으며 전서는 담암 민진원이 썼다. 아들은 군수 양성, 창수 정성, 동지중추 순성, 오성을 두었다.

31세 진산공(珍山公) 중집(中輯)

공은 수암 문순공(文純公)의 현손으로 영조 29년 출생하였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 진산군수에 이르렀다. 순조 14년 62세로 졸하니 장자 돈인(敦仁)이 귀히 되어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충북 제천시 감물면 오창에 있다. 비문은 찬선 오희상이 짓고 문헌공 돈인이 글씨와 전서를 썼다. 후사는 돈인, 효인, 철인과 3녀를 두었다.

32세 문헌공(文獻公) 돈인(敦仁)

문순공(文純公)의 5대손이고 진산공(珍山公) 중집(中輯)의 장남이다. 호는 이재(義齋)이고 정조 7년에 출생하여 순조 13년 증광시 문과 병과급제하여 승문원 정자가 되고 순조 19년 동지사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연경에 다녀오고 헌종 2년 54세에 병조판서로서 진하사(進賢使) 겸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후 경상도 관찰사에서 들어와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고 헌종 8년 60세로 우의정(右議政)에 올랐으며 동 9년 좌의정(左議政)으로 승차하였다가 헌종 11년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헌종 15년 왕이 승하하자 원상(院相)으로 국정을 맡았다. 철종 2년 장조의 형인 경의군을 추존하여 임금으로 하고 위패를 종묘 정전에서 영녕전으로 옮길 때 헌종을 묘사(廟社)에 모시도록 주장했다가 논척되어 순흥으로 이배되었다. 철종 10년 연산에서 졸하니 수 77세였다. 사후에 신원이 되고 시호가 문헌(文獻)으로 내렸다. 공은 대인장자(大人長者)의 풍도에 문헌(文翰)과 학덕(學德)을 갖추고 서체 또한 능하여 당대의 명필로 유목이 도처에 남아있다. 문장 또한 능하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시 헌종의 행장(行狀)을 짓고 우의정 시 효현왕후의 애책문(哀冊文)을 찬진하였다. 유교로 이재집(義齋集) 27권을 남겼다. 묘소는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에 있다. 아들은 참판 용수(用脩)를 두었다. 용수(用脩)는 현종 12년 식년시 갑과 급제하여 참판에 이르렀다.

33세 判官公 용수(用脩)

공은 이재선생의 아들 기사생이며 문과 진사하여 참판(參判)에 이르렀다. 정축년 졸하니 수 69세이며 묘소는 충주시 부면 능암후동에 있는데 괴산군 감물면 오창리로 이장하였다. 묘지문은 보선이 찬하였다.

33세 의병장(義兵長) 용일(用伯)

성원(聖源)의 차자 영(稜)의 7대손이다. 공은 을미사변으로 나라의 운세가 기울자 경북 선산에 들어가 병서를 공부하고 창의하여 24세에 의병장 이강년 휘하에 들어가 우군선봉의 중책을 맡았다. 1908년 까지 제천, 증평, 연풍, 죽령, 안동 등지에서 전투 시 수백명 왜병을 괴멸시켰다. 서울로 올라와 중국의 원세개에게 보내는 고종황제의 청병조서(請兵詔書)를 받들고 출국하는 도중 발각되어 동지들이 체포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을 맞아 귀국하여 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1971년 졸하니 수 88세였다. 묘소는 청풍면 용곡리 산4번지에 있고 치묘입석하였다. 아들은 재선(載善) 김선(吉善)이 있다.

33세 소유공(小游公) 용정(用正)

26세 주(柱)의 7세손이며 화릉군 상우(尙友)의 6세손이고 증조는 성응(聖應) 선고는 천유재(天游齋) 복인(復仁)이다. 순조 1년 신유(辛酉)에 출생하여 학행으로 천거되어 출사한 후 산청군수를 거쳐 청풍부사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다. 문장이 탁월하여 세상을 명동(鳴動)시켰으며 철종 12년 졸하니 향년 61세였다. 유교로 소유집 7권을 남겼다. 묘소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복리에 있다.

36세 수정공(遂庭公) 익상(益相)

문순공 상하의 9대증손으로 고종 11년 출생하고 호는 수정(遂庭)이다. 고종 29년 별시문과급제하여 내작으로 참판에 이르고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공은 청도 낭중공 유허를 봉송하고 1943년 70에 졸하였다. 묘소는 한수면 황강 후록에 있고 후사는 희문(熙文), 희식(熙軾)과 2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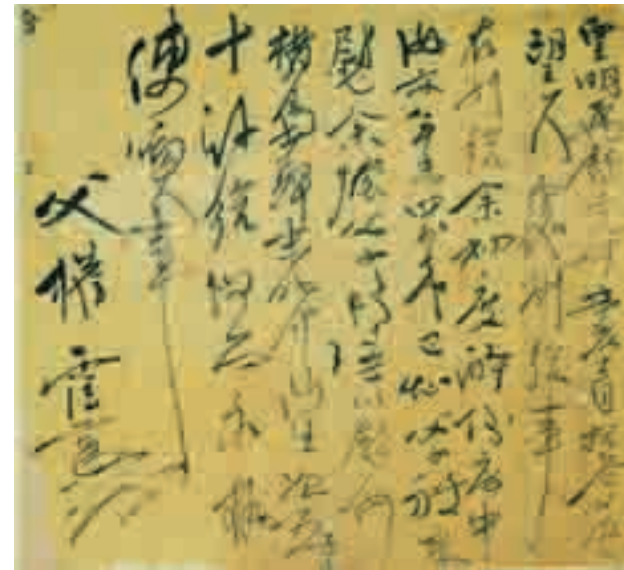
자료제공: 시중공파회장 노림 권중덕 자료검토: 월천 권경상 편술: 죽헌 권경석 竹軒 權景哲



△상도 묘역: 시흥시 하중동 재사 앞산



△찰방공(察訪公) 주(璽) 묘소: 충북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



△찰방공 필적



△문헌공(文獻公) 돈인(敦仁) 존영(영의정)



△문헌공(文獻公) 돈인(敦仁) 묘소: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



△소유공 용정 수월과 회(畫)